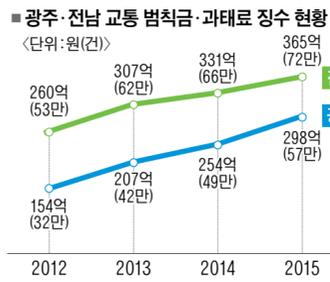


광주·전남 후 지난해 10대중 9대 벌금 냈다

129만건 적발 663억원 부과 4년새 적발건수 두배 늘어 현 정부 3년간 1762억 납부 “세수 충당용 단속 강화” 불만

지난해 광주·전남 경찰이 무인단속 카메라와 현장단속 등을 통해 거둬들인 교통 과태료와 벌칙금이 663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징수 건수 기준으로는 129만건으로, 광주·전남 등록차량이 148만대인 점을 감안하면 차량 10대 중 8.7대가 교통 과태료·벌칙금을 낸 셈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등록차량 61만대의 93.4%인 57만대가 벌금을 납부, 대부분의 운전자가 벌금을 낸 꼴이다.



상 첫 800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 급증했다. 2012년 554억원이었던 교통 과태료·벌칙금이 현정부 첫해인 2013년 6379억, 2년차에 7190억, 3년차인 지난해 8046억원에 이른 것이다. 3년만에 약 25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광주·전남지역은 더 심했다.

2012년 154억원(32만건)이었던 교통 과태료·벌칙금이 2013년 207억원(42만건), 2014년 254억원(49만건), 지난해 298억원(57만건)으로 급증했다. 4년새 93.5%인 144억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박근혜정부 3년동안 광주에서만 교통 과태료·벌칙금으로 759억원의 세수를 늘린 것이다. 전남은 현정부 들어 3년간 1000억원을 넘어선 1003억원(307억, 331억, 365억)을 납부했다.

특히 증가 속도가 급속히 가파라지고 있다. 전국 평균 연간 벌금 징수 증가율이 12~15%(15.1%→12.7%→11.9%)인데 광주는 최근 3년간 34.4%→22.7%→17.3%로 전국 평균을 2배 가까이 웃돌고 있다.

이같은 속도(평균 20%)로 벌금이 증가한다면 광주·전남지역은 앞으로 3년내(2016년 795억원, 2017년 954억원, 2018년 1144억원) 교통 과태료·벌칙금 수입이 1000억원을 거뜬히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교통 벌금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속을 강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특히, 경찰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무인단속구간에 무더기로 속도를 하향해 단속 적발 건수가 폭증하는 등 불합리하고 과도한 단속으로 운전자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박남춘 의원은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374조인데 교통 벌금이 1조에 육박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운전자 대다수가 벌금을 내는 이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서민 증세가 아니라면 교통 벌금 폭탄 사태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최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완도 여서도 부근에서 발견한 범고래 무리가 힘차게 헤엄쳐나가는 모습. (환경부 제공)

완도 여서도서 국제 보호종 ‘범고래’ 무리 발견

완도 여서도 주변 바다에서 최근 영화 프리릴리의 주인공이자 바다의 포식자로 알려진 ‘범고래’ 무리가 발견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다도해해상국립공원내 여서도 일대에서 범고래 6마리가 무리 지어 이동하는 모습을 촬영했다고 26일 밝혔다.

범고래 영상은 지난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해양생태계 조사 당시 촬영됐다. 길이 5m로 추정되는 범고래 6마리는 시속 30km로 북서방향인 완도 내륙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울산, 독도 등 제한된 지역에서 범고래가 발견된 사례가 있지만 동영상으로 촬영된 경우는 처음이다.

범고래는 참돌고래과에 속하는 고래 중 가장

큰 종으로 국제적 보호종이다. 범고래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형태학적으로 개만 등과 가깝게 분류, 눈 주위에 흰 무늬가 있다. 최대 50마리까지 무리 지어 생활한다. 어린 개체 몸길이는 2m로 어른이 되면 8m이상 자란다. 영화 ‘프리릴리’의 주인공 윌리처럼 신속하고 영리한 동물이다. 그러나 최근 해양오염과 먹이 감소, 어선 충돌사고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범고래는 우리나라 인근 바다에서는 발견되기 매우 힘든 종이다”면서 “이번 범고래 무리 발견으로 여서도 주변의 국립공원 해양생태계가 매우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모텔서 여친 밀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여자친구를 모텔 창문 밖으로 밀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여자친구 A(27)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A씨의 신체 손상 정도(방향·각도)와 초기 상황, 현장 재조사, 과학적 분석 결과를 근거로 단순 추락사라 아닌 살인으로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어린 딸이 있는 A씨가 자살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범행 직전 구직 문제로 다투다 폭력을 휘두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씨의 범행으로 A씨가 숨지고, A씨의 딸은 유일한 가족을 잃었는데도 피해자 가족의 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10시46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모텔 7층에서 딸따름 중 장문에 걸터앉아 있던 여자친구 A씨를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텔 건물 옆 화단으로 떨어진 A씨는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오전 0시35분께 숨졌다. A씨는 119구급대원과 병원 간호사에게 ‘남자친구가 장부으로 떠났었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내일부터 다시 장맛비 무더위 한풀 꺾인다

광주·전남지역은 27일까지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28~29일에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한풀 꺾이겠다.

2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7일 광주·전남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광주·나주 29도, 순천·광양 28도 등 높은 지역은 28~29도 분포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28일에는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으면서 오전에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 전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남해안에서는 천둥·번개가 치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장맛비는 2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장맛비로 낮 최고기온은 22~25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다음달 2~4일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8월 광주·전남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위와 습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보되면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 동구 내남지구 개발 1년만에 사업자 선정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1년 가까이 사업자 모집에 난항을 겪은 광주 동구 내남지구 사업자가 선정됐다.

동구는 지난해 8월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내남지구 사업자로 지역 중견건설업체 진아건설(주)을 선정,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동구는 2018년 하반기까지 1150세대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목표로 10만9460㎡ 부지에 총사업비 452억원을 들여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남지구는 국도22호선과 인접한 교통 편리성, 광주전·무등산국립공원이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 단설유치원 개원과 초등학교 개교 등 최적의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동구의 설명이다.

특히 이미 입주를 마친 월남2단계(654세대)와 입주가 진행 중인 월남2단계(784세대)에 이어 월남3단계에 해당하는 내남지구 조성이 마무리되면 동구 남부권에 2600여 세대 규모의 새로운 주거타운이 탄생,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관절을 위한 선택! 백세까지 건강한 관절을 위한

관절, 연골, 인대 조직을 구성하는 **MSM 2,000 mg 함유!**

연어코연골 추출물 (부원료)

프로테오글리칸 함유
비변성 2형 콜라겐 함유

히알루론산, 상어연골분말, 해조칼슘, 비타민D (부원료)



1,200 mg x 120 정 (2개월 분)

백년백세관절

비타민하우스 가맹국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1588-8529

오늘의 날씨

해출 05:20 / 해진 19:51 / 달출 --- / 달진 11:56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세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흐려지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차차흐림	20/29	보성	차차흐림	17/24
목포	차차흐림	20/25	순천	차차흐림	19/28
여수	차차흐림	20/24	영광	차차흐림	18/28
나주	차차흐림	18/29	진도	차차흐림	18/25
완도	차차흐림	19/25	전주	구름많음	18/29
구례	차차흐림	17/29	군산	구름많음	20/28
강진	차차흐림	18/25	남원	구름많음	17/29
해남	차차흐림	18/26	홍산도	차차흐림	19/24
장성	차차흐림	17/28			

◇ 바다 날씨

해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남서	0.5	중~남중	0.5~1.0	
남부	남~남서	0.5~1.5	중~남중	0.5~1.5	
남해	남서~서	0.5	중~남중	0.5~1.0	
서부	남서~서	0.5~1.0	중~남중	0.5~1.5	
남부	남서~서	0.5~1.0	중~남중	1.0~1.5	

◇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자외선 매우높음
- 피부질환 보통

◇ 주말 날씨

날짜	날씨	기온(°C)
28(화)	구름많음	20/25
29(수)	흐림	21/26
30(목)	흐림	22/27
7/1(금)	흐림	21/28
2(토)	흐림	22/27
3(일)	흐림	22/27
4(월)	흐림	22/28